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2001 봄 (통권 제11호)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번지

□ 사색을 위한 인용 □

어느 거지의 변

장영희

1984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유화중에 여름 방학이라서 잠시 집에 돌아와 있던 나는 윈도 쇼핑이나 하자면서 잡아 끄는 동생을 따라 명동 주변으로 갔다.

달리 입을 것이 없었던 나는 군데군데 거의 울이 보일 정도의 낡은 청바지에 내 땀이 들은 들어갈 정도의 넉넉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옷을 선택할 때 나의 기준은 철저하게 두 가지 — 디자인은 편한 것, 색깔은 세탁을 자주 할 필요 없는 것 — 였다. 사실 선택이고 뭐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사계절용 청바지 하나에 티셔츠 몇 개면 족한 생활이었으므로 옷을 살 필요도, 또 사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생전 처음 명동에 간 나는 양장점과 구두 가게들이 즐비한 거리를 외계인처럼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어떤 진열장에 걸려 있는 흰색 원피스를 가리키며 입을 보겠다고 했다. 마침 그 가게 앞에는 내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은 문턱이 있어서, 나는 그냥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문 밖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보니, 아주 아름다운 중년 여인이 만면에 미소를 띠며 동생을 반겼다.

그런데 동생을 탈의실로 안내한 후 무심히 돌아서던 그녀가 문에 기대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를 보고는 흠칫 놀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면서 내뱉듯이 말했다.

“나중에 와요. 손님 있는 거 안 보여요?”

그제나 이제나 눈치 없기로 소문난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가 이번에는 한 옥타브 더 높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중에 오라는 말 안 들려요? 지금은 동전이 없다구요!”

순간 그 소리를 들은 동생이 옷을 입다 말고 탈의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언니를 뭘로 보는 거냐구요!”

는 그제야 주인 여자가 나를 가게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로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언니는 박사예요, 박사. 일류 대학을 나오고, 글도 쓰고 책도 내는...”

갈다란 흰색 원피스를 한쪽 어깨만 걸친 동생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분노의 여신 같았다. 주인 여자는,

“목발을 짚으신데다 입성까지 그러셔서” 하며 아주 공손하고 겸연쩍게 사과했지만, 못내 억울한 표정이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녀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신체 장애는 곧 가난, 고립, 절망, 무지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사회에서, 그것도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거리에서 구멍난 청바지에 낡은 티셔츠를 걸친 것만 해도 빗한데, 결정적으로 목발까지 짚고 서 있었으니 거지의 모든 필요 조건을 다 갖춘 셈이 아닌가.

어쨌거나 여름날의 그 경험은 나의 생활 패턴을 바꿔 놓았다.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바로 다음날부터 나는 청바지를 벗어버리고 정장을 했다. 옷을 선택할 때는 실용성보다는 문자 그대로 ‘거지처럼 보이지 않는’ 데 기준을 둔다. 로션 하나 안 바르던 얼굴에 화장도 한다. 학생들 말마따나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거지로 보일 확률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렇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을 나는 사명으로 생각한다. 아니, 더 나아가 희생이라고 까지 생각한다. 어차피 목발을 두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므로, 순전히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학생들의 체면을 위해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명예를 생각해 그래도 동전 구걸하는 거지로는 보이지 말아야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피같이 아까운 시간 10분을 들여 열심히 분 바르고 립스틱을 칠한다. (필자: 서강대 교수·영문학)

— 에세이 『내 생애 단 한번』(샐터)에서

◇저서 출판을 축하합니다◇

최명관 지음 생각하며 산다

(송실대학교 출판부 펴냄)

이 책은 허원(虛遠) 최명관 선생께서 그동안 여러 곳에 투고하셨던 글들을 한데 모은 문집이다. 논문 성격의 글들을 모아 놓은 ‘자유와 휴머니즘’을 비롯하여, 에세이류의 글들을 모아 놓은 ‘살찐 돼지와 마른 소크라테스’ 등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만원)

● ● 알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회비: 회장단(15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한빛은행 461-146308-02-001
우체국 012948-0048513
(예금주) 송철동문(김기순)

□ 同門斷想 1 □

철학과에서는 철학 공부에 필수적인 외국어와 고전어를 학생들이 접근하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5주 동안 주 3일(월, 수, 금) 하루에 3시간씩 집중적으로 독일어와 희랍어, 한문을 마스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음의 세 단상은 이번 고전어 집중코스에 참여했던 수강생들의 수강 소감이다. - 편집자

오랜 잣더미 속에 작은 불씨



崔天石

할렐루야 살롬 — 감사합니다.

저는 67학번으로 현재 고등학교 윤리교사로 재직중입니다. 철학과 재학시절에는 안병욱 교수님, 최명관 교수님, 조요한 교수님, 고범서 교수님, 네 분 스승님들로부터 훌륭한 인격과 심오한 학문의 소중한 은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문계승 사명도 망각하고 육신적 성취도 없는 무능함으로 제자도리도 못하고 동문회에 아무 보탬도 못된 너무나 부족한 사람으로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진리의 열정 앞에 부끄럽습니다. 심중에 죄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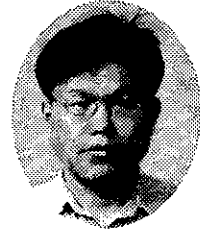
70년대에 정치철학 분야를 조금 공부하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배우던 중 동기생 중에 정치 사회화와 국가 발전에 관한 우수한 논문을 끝내고 박사과정에 진학했던 한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저의 모습은 저의 부족함에 근거한 전적으로 저의 탓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삼가 가슴 아픈 타계의 계기로 말미암아 저는 학문의 열정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섭리혜로 회개와 구원하심을 힘입어 주님 예수님의 복음신앙 전도를 주변과 교직에서 기쁨으로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과 철학 서적을 잘 읽어보고 싶은 소망으로 이번 겨울방학중 집도 가깝고 해서 모교 졸업후 30여년만에 고전어 강좌에 참석해서 많이 배우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철학공부에 필수적인 고전어 강좌를 국내대학 처음으로 개설·운영·주관하신 한석환 철학과 주임교수님께 진리에 충실한 학문적 사명의 소중한 봉사·열정·은덕에 대해 심중에 사랑과 존경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동문들이 평소 느끼신 대로 한석환 주임교수님은 맑은 영의 경건한 신앙과 운유 겸손 소탈한 인간성으로 무게 있는 감화 감동을 주시는 참 좋은 분입니다.

우리 철학과의 우수한 발전을 탁월하게 주도하고, 『사색』지와 철학강좌 및 동문들을 챙겨 주는 화목 단결한 동문회 발전향상에 크게 공헌하고, 대학 행정에도 평소 애쓰시는, 봉사·열정·헌신적 정성의 진실한 인격자이신 철학자 한석환 주임교수님을 하나님이 기뻐(9면에 계속)

□ 同門斷想 2 □

맹자를 읽으면서...



설 충 수

얼마전 동문회 간사일을 보고 있는 후배로부터 한가지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번 소식지에 방학동안 『맹자』를 수업한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동문단상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제의를 받고서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동문회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못된다는 자격지심에서 그럴까.

난 사실 장신대 신대원을 나오고 뒤늦게 송실대 철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학부 때부터 철학을 토대적으로 공부하지 못해서 그런지 대학원에서 철학공부(동양철학전공)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마 처음 나에게 가장 크게 부딪혔던 난관은 지금까지의 신학적 마인드에서 철학적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 쉽게 극복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워낙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런지 나도 그리 오래가지 않고 포기할 것만 같았던 철학공부가 이제는 5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돼서 놀러 앉은 것인지 아니면 어디 갈 때가 없어서 놀러 앉은 것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공부할 때 만큼은 즐겁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신학도 마찬가지였지만 철학도 진지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 인간의 고뇌가 자신의 주변정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나에게 많은 면에서 의미를 던져주는 시간이었다.

동문단상을 써달라는 부탁은 사실 송실 철학과 학부에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자칫 내 얘기만을 하는 글이 될까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이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주제넘게나마 몇 마디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읽는 『맹자』는 지금까지 동양철학을 공부하면서 四書를 제대로 한 번 읽어보는 기회이다.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 『논어』, 『대학』, 『중용』을 읽고 지금 신하령 선생님과 함께 『맹자』를 읽게 되었다. 철학과에서 마련해준 기회라서 그런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열의 있는 수업자세를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학부생들에게 주워지는 이런 기회는 정말 돈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라 느껴진다. 나에게도 신학공부를 하면서 이런 기회가 그 옛날, 그 전부터 주워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뒤늦게 읽는 동양의 고전은 성경만큼이나 흥미를 안겨다 준다. 처음 『성경』을 정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콧물, 정말 자질구레한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지향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느낌을 받은 것처럼, 전국시대, 그 난관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려는 맹자의 몸짓은 인간적 냄새가 물신 풍기는 인간극장파도 같았 (9면에 계속)

□ 同門斷想 3 □

고전어 집중코스를 듣고...



조 현 진

바빠 한 학기를 마치고 긴 겨울방학기간 동안을 어떻게 보람있게 지낼까 고민하던 중 모교에서 고전어 집중코스를 개설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독일어와 한문 등의 과목들도 있었지만 유독 내 눈을 끈 것은 희랍어였다. 솔직히 서양철학을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도중에 군데군데 써있는 희랍어를 제대로 읽기조차 못해 답답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희랍어를 배울 공간도 기회도 마땅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희랍어가 독일어의 격용법과 프랑스어의 동사변화를 합한 약명 높은 언어라는 소문 때문에 나는 최소한의 수강목표를 설정했는데, 그것은 우선 희랍어를 제대로 읽는 법을 배우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강의가 시작되자 나의 목표수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첫째 시간에 알파벳과 함께 읽는 법은 다전수(?) 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쉼표나 엑센트의 종류 및 위치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배우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나는 기초적인 희랍어 문법의 습득과 희랍어로 된 철학적 개념의 개념사를 정리하는 것으로 수강목표를 변경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강사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이 큰 역할을 했다. 고대철학을 전공하시는 강사분께서는 교재에 나오는 고전 텍스트 중 상당수가 철학 텍스트인 까닭에, 거기 나온 개념들의 기원과 의미변천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모르던 철학개념들의 어원 및 그것의 다양한 용례들을 알게 되었다. 가령 *einai* 동사의 다양한 용법이나 *eidos*의 의미에 대한 설명 등은 철학사의 이해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념사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 희랍어 문법에 대한 흥미의 증기를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 가뜩이나 어려운 문법은 몇 번의 결석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졌고, 따라서 '기초적인 문법의 습득'이라는 목표가 흔들리게 되었다. 희랍어 문법 중 특히 어려웠던 것은 분사용법이었다. 한편으로는 영어의 분사구문과 비슷했지만 그 자체가 성과 격을 갖고 변하기 때문에 문맥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려운 것은 나만은 아니었던지 처음에 거의 10명을 육박하던 수강인원은 4~5명으로 줄어들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애초 설정했던 두 가지 수강목표 중 하나는 비교적 만족스럽게 달성됐지만 다른 하나는 나의 게으름 때문에 만족스럽게 달성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문법지식에 대한 나의 부족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나는 플라톤의 대화편이나 성서 등을 단편적으로나마 원전으로 읽을 기회를 가졌다는 데 대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만약 강의 자체가 문법전달에만 치중했다면, 이런 기회를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언어적 지식, 특히 한 사상의 원류를 이루는 고전어에 대한 지식의 습득은 학문을 위한 필요조건임에도 불구하고, (8면 아래로 계속)

◆나의 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00

카시러 문화철학에서의 인간 연구



신 응 철

I

카시러의 철학은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접근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는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적인 해석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영·미 계통의 해석 방식이다. 전자는 카시러의 철학을 신칸트 학파의 인식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후자는 카시러를 역사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 우선, 카시러의 철학에 대한 대륙적인 해석 방식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카시러의 사상에 대해 대체로 칸트 그리고 헤르만 코엔(Hermann Cohen, 1842-1918)과 파울 나토르프(Paul Natorp, 1854-1924)를 중심으로 하는 신칸트주의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카시러의 사상을 '인식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과학적 인식에 관한 인식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카시러가 신칸트 학파 중 마르부르크 학파의 방법론과 철학적인 확신에 그 자신 또한 머무르고 있다고 간주한다. 다음으로 영·미 계통의 해석방식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카시러의 철학을 대개 역사주의의 한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이 해석에서는 역사적 삶 속에는 고정된 목적이나, 객관적인 규범들 혹은 기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역사적 삶 속에는 오직 인간 정신의 전개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마르부르크 신칸트 학파의 한 사람인 카시러의 철학을 '인식이론' 혹은 '역사주의'의 관점이 아닌 '문화철학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석할 것이다. 카시러는 거의 대부분의 시기를 마르부르크 신칸트 학파로서 인식이론 혹은 과학철학에 관심을 가졌었지만, 인생의 말년인 61세부터 생을 마감하던 순간까지 문화철학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서 볼 수 있는 사상의 전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카시러가 왜 문화철학 쪽으로 관심의 방향을 바꾸었으며, 자신의 문화철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장하려 했던 바가 무엇이었던지를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필자의 이 연구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이 불음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데 있다. 필자는 앞으로 크게 두 가지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카시러는 인류가 끊임없이 제기했던 문제,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관심의 영역을 인식이론 혹은 과학철학에서 문화철학으로 바꾸게 되었다. 카시러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내적 원리나, 외적인 경험적 관찰로써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바의 일, 인간 활동들의 체계를 통해서 정의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서 이해하고 있다. 둘째, 상징적 인간관을

중심으로 엮어지는 캣시러의 문화철학은 궁극적으로는 이성 중심, 논리 중심의 인간관,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 있는 현대인들의 일견적인 과학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인간을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II

필자는 본 논문에서 캣시러가 '상징적 인간관'을 중심으로 문화철학을 전개해 나아가는 방식을 '해석학적 방식'과 '철학적 인간학의 방식'에서 재구성하여 추적해 갈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는 해석학적 방식이란, 신화, 예술, 언어, 역사 등 주어져 있는 문헌이나 자료들을 통해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 연관관계를 간접적으로 규명해 나아가는 캣시러의 방법론을 수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리고 철학적 인간학의 방식이란, 다양한 문화 현상들에 대한 캣시러의 논의가 문화철학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일련의 시도라는 점, 나아가 인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의 인간론의 내용을 수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서 필자가 규명하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첫째, 캣시러의 문화철학의 논의 전체를 이끌어 가는 핵심 개념은 무엇이며, 그것이 인간에 대한 논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캣시러의 문화철학은 독일 관념론에서 어떤 철학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캣시러의 문화철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징 형식들에 대한 논의 주제는 무엇이며, 그러한 논의에서 나타나는 캣시러만의 고유한 입장은 무엇인가? 넷째, 캣시러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해명해 가고 있는가? 다섯째, 캣시러의 문화철학의 특징과 의의는 무엇인가?

III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인간의 특성들 가운데 철학사적으로나 시대 경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왔거나 혹은 과소평가 되었던 부분들, 즉 '상징적 사고', '신화적 사고', '예술적 직관', '자발적 상상력' 등을 강조하여 부각시킨다. 왜냐하면 이 같은 요소가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부분이 되며,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필자는 결론에서 캣시러의 문화철학의 특징을 일곱 가지로 요약하여 살핀다. 첫째, 캣시러의 인간 이해에는 항상 '자유'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둘째, 캣시러가 말하는 문화는 인간정신의 점차적인 '해방과정'이다. 셋째, 캣시러의 문화철학 논의와 인간 해석의 공통 분모는 '상징' 개념이다. 넷째, 캣시러가 말하는 인간 문화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객관화'의 과정이다. 다섯째, 캣시러의 문화철학 논의에는 '생명 평등권', '생명사회'에 대한 희구가 들어있다. 여섯째, 캣시러의 문화철학 논의에는 주관·객관의 이분법, 즉 근대 주관주의의 인식방식이 극복되고 있다. 일곱째, 캣시러의 문화철학 논의에는 간접적이고 매개적인 자기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캣시러의 문화철학은 인간 이해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 문화비판과 시대비판이라는 철학의 고유한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캣시러의 문화철학이 문화비판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칸트가 대상자체보다는 대상에 대한 우리 인간의

다양한 인식방식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 현상들 자체보다는 문화가 작동하고 있는 구조나 기능, 그것들 상호간의 관계를 상징적 인간관을 통해 조명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이성적 인간관의 한계를 비판하고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시러의 문화철학이 시대비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문화철학이 문화의 제요소를 해명하고 분석하는 한갓 관념론이라는 분과 학문으로 머물지 않고 항상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관련하여 실천적인 측면, 특히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나아가 인간의 문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객관적인 관점을 통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객관적인 관점이라 함은 문화철학이 나아가갈 방향이 개인의 세계가 아닌 인간 공동의 세계, 즉 다양성과 다변성, 차이성, 이질성이 인정되는 그러면서도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인간 공동의 세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카시러의 문화철학은 새 천년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 문화 담론을 학문적으로 한 곳에 모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카시러의 문화철학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비판적 관념론으로서의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유 개념, 인간의 해방과 객관화 과정, 매개적 인식, 주·객 이분법의 극복, 생명 사회 등의 다양한 논의 소재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시러의 문화철학에서 보이는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인간 이해 방식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고립된, 폐쇄된, 컴퓨터화 된 자화상을 반성케 해 주며, 나아가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때 마른 인간관계를 생명에 근거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윤리적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데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64회·남서울대 강사)

(5면에서 계속) 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고전어 강좌를 무료로 여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점에서 나는 모교의 고전어 강좌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모처럼 마련된 이런 기회는 고전어 강좌의 정례화와 고전강독 모임의 개설 등으로 발전되어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66회·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저서 출판을 축하합니다◇

신 응 철 지음 카시러의 문화철학

(한울 아카데미 펴냄)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미술이나 연극, 영화와 같은 문화현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예전과 비교해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진 이유도 있겠거니와 아무래도 인생의 참맛을 음미해보려는 욕구들이 시대 조건과 맞아떨어진 현상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문화담론에서 콘텐츠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학문적으로 문화담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문화이론, 문화철학에 근거한 논의들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화담론을 이론적 틀로써 한곳으로 모아내고, 실천적 방안에서 그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한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다. (9천원)

(3면에서 계속) 하시고 사랑하시는 훌륭한 인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한석환 주임 교수님은 이 곤고한 시대에 탁월한 대학지도자로 크게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 가득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의 5주간 동안 독일 유학하신 김인석 박사님 지도로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첫 주間は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일 8~9시간씩 일주일간에 500여쪽 최신 독일어 책을 끝내고, 2주째부터는 종합 독일어 해석 연습(서울대 박사과정기출시험문제포함)과 Martin Heidegger und Thomas von Aquin 교재로 Mensch - Zeit - Sein을 배웠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정확한 문법 구문을 분석 지적해가면서 독일 유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 넘치도록 풍부한 어학실력으로 폭포수처럼 내리쏟고 휘몰아친 태풍처럼 저를 사로잡는 무서운 집념과 열정의 명강의에 매료되었습니다. 지도해 주신 김인석 박사님께 학자전형의 그 엄숙 겸허하고 호탕한 인간적 사랑과 성령 충만한 복음적 신앙인으로 탁월한 실력의 학문적 열정에 감격하며 존경하며 — 저는 흠먼지 띠끌로 이미 죽어버린 오랜 잿더미 속에서 작은 불씨를 피우게되어 제 인생을 소생시키신 큰 은덕에 가슴 가득 항상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 회랍어는 이상인 박사님 지도로 배웠는데 그 탁월한 회랍어 실력으로 열정적 집념몰두로 훌륭하게 지도해 주신 은덕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좀 고생했습니다.

“진리와 봉사” 교훈에 따라 우리 모교 崇實 명칭은 “거룩한 열매”의 의미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은혜중에 주님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혜 권능에 사로잡혀 냉철한 맑은 지성과 뜨거운 가슴이 조화 성숙되어지는 많은 동문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원대한 자아실현과 이 민족 국가사회 발전에 봉사헌신하며, 이 곤고한 시대에 역사적 사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민족 사화 명문인 모교가 국내의 정상과 한국의 하버드 대학으로 발전하고, 특히 우리 철학과는 진리의 제왕다운 권위로 세계 정상의 학문요람으로 성숙 발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동문들의 생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시기를 계속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46회·인천 광성고등학교 교사)

(4면에서 계속) 다. 더더욱 우리와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고전의 탐독은 우리 신학을 해야겠다는 나에게는 더욱 절실한 것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가 『성경』도 읽고, 『맹자』도 읽고, 『논어』도 읽고, —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주워졌다는 걸 천행으로 여긴다. 좀더 큰 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세상이 있어서 그런지 즐겁기만 하다. 자신의 잘못을 남의 장점을 통해 바로 잡고 남의 단점을 통해 저런 모습은 좋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다 보면 서로 의미 있게 이야기할 때가 올 거라 믿는다.

성서와 동양의 고전의 만남에 관해선 이야기가 무성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서든 동양의 고전이든 자신을 열어놓고 겸허하게 그 세계의 깊이에 빠져들어 가는 것이다. 참다운 자신을 이해할 때, 나만큼 소중하게 자신의 삶을 이어온 옆에 있는 이웃도 덩달아 이해가 될 것이다. 이번 『맹자』 읽기는 비록 동양의 고전이라 하더라도 목사인 나에게는 더욱 절실한 자기이해로 다가왔다. (대학원·경기 중앙교회 부목사)

□ 同門을 찾아서 5 □

젊은날의 초상, 그 이후

— 민주당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남 근 우 동문(65회)을 찾아서 —

· 인터뷰: 이성준(동문회 간사·대학원 석사과정), 박유리(학부 4학년/ 경리)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의 태양은 찬바람을 녹이기에 부족했다. 한시간이나 늦어버린 약속시간 때문에 마음까지 썩늘해지며 인터뷰할 선배님의 사무실에 딱딱하게 앉아 있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파란 셔츠에 검은 빨데 안경을 쓴 샤프한 중년신사가 미끄러지듯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선배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멋쟁이었다. 나이 50을 바라보는 75화번 선배라 믿기엔 너무나 젊고 단다해 보였고, 인터뷰를 염두에 두면서 줄곧,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풍채 좋은 점잔은 아저씨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었기에, 젊은 청년과 같은 후리후리한 체격에, 파란 수트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은빛시계 라던가 와이셔츠에 썩 잘 어울리는 넥타이 문양 등의 옷맵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간 당황스런 마음으로 서둘러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드린 후 곧 바로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갔다.

확력한 재야 활동

- 현재 민주당 소속이신데, 정당 활동은 언제부터 하게 되었나요?

내가 지금 민주당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당직이야마 바뀔거예요. 당 활동을 한지는 꽤 오래됐지. 평민당 때부터 했으니. 내가 원래 재야

운동하고 학생운동을 했어요. 그 당시 김근태, 이해찬, 김부겸, 장영달씨 등이 있던 민청련에서 내가 집행국장을 했었지. 그 후, 87년 대선 때 재야에서 노선싸움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입장은 김대중씨에 대한 비판적 지지파였어요. 그 때, 박영숙, 문동환 박사를 비롯한 98인이 민통련, 민청련에 입당할 때 나도 대표로 들어갔지요.

- 그럼 학부시절부터 운동을 하신거군요

그렇죠. 군대 제대하고 나서 80년에 복학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데모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제적도 당하고, 그 전에도 데모를 많이 했었는데, 의식화되어 정리된 상태는 아니었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게 된 건 제대하고 부터예요. 그 때는 시절이 시절이니 만큼 누구나 사회적인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생들도 많이 데모를 했었어요. 나도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를 했었지. 동아일보 사태라던가, 인혁당 사건 같은거 말야... 사형선고 내리자마자 다음날 사형을 집행한 사건, 그 일을 알고 난 너무 쇼크를 먹어서 막 울면서 거리를 헤맸어. 어떻게 그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사회적 분노를 느꼈지. 그 사건으로 서울대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났었는데, 나도 광화문에서 데모를 하다가 형사한테 찍히고 나서 군대

에 들어가게 되었어. 제대할 때
가 79년쯤이니, 박정희 대통령
암살되고, 12.12사태가 일어나
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
연스럽게 대규모 시위에 참여
하게 되고, 우리학교 최초 씨클
인 '우리말사랑'은 서울대 문학
서클에 영향을 받아서 데모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어.

-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74, 75의 마음 맞는 선배, 동기들 서너 명
하고 아현동 큰 교회에서 '살인마 전두환을
처단하라' 같은 유인물을 몇 백장 만들어서,
나는 학교 도서관에 배포하고 다른 친구들은
각 대학에 돌리고... 몇 달 간 도망 다녔지.
근데 그 때 집 형편도 어려웠어. 형도 그때
사고를 당해서 다쳐있고, 유일하게 할 수 있
는 생계수단이 석유배달인데, 그거 하려고
집에 들렀다가 잡혔지. 그래서 안양교도소에
서 몇 달간 있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내 공
범이 다니던 아현교회가 전두환 직계 참모인
대령이 다니던 교회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운 좋게 몇 달만에 반성문
쓰고 풀려났지. 그치만 그 반성문 쓰는 게 나
는 참 가슴이 쓰라렸지.

교도소에서 나와보니까 기다리는 생활이
기막힌 지경인 거야. 집은 완전히 파산직전
이지, 형은 드러누워 있지, 슈퍼마켓 주임,
청계전의 파이프 도매상의 주임 생활 등 완전
히 밑바닥 생활이었어. 그렇지만 그 당시, 안
양 교도소에서 알게 된 여러 대학친구들하고
같이 씨클 친구들과하고 실천적으로 공부해오
면서 84년도에 민청련에 자리를 잡게 되었
지. 그 후로 이제 재야운동에서 소위 말하는



남 근 우

운동권이 된 셈이고... 지금도 계
속 그 활동을 해온 거지.

- 민청련은 저희 세대에선 조금 생
경한 단체인데...

민청련은 그 당시 서울을 비롯,
경기도를 포함한 각 대학의 운동
권 출신들이 모여 민주화 운동의
선두 투쟁을 기치로 내걸고 모인
조직이지. 그 때 김근태 선배가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어 아주 강인하게 싸웠
어. 나는 도시빈민분과위원장을 맡았었
고...

선배님은 담담하게 결코 순탄치 않았던 지
난날의 기억들을 꿰이지 않고 풀어내셨다.
인터뷰의 분위기가 점차 엄숙하고 무거워질
듯 싶어 문득 엉뚱하고 짓궂은 질문을 해보고
싶었다.

-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선배님이 송실대 철
학과에 오게된 것은 점수에 맞춰서 응시하다보니
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철학과에 다른 뜻을 두고
오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하하... 그 때... 철학과에 가야겠다는 생각
은 뚜렷했어. 그래서 1차는 서강대 철학과
를 썼고, 2차는 송실대 철학과를 지원했지
요. 내가 공부를 곧잘 했어(웃음). 비록 1차
는 떨어졌지만, 그 당시 송실대 철학과가 매
우 좋다고. 안병욱 교수님을 비롯해 조요한,
최명관 교수님이 매우 유명하셨고,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강사님들의 실력도 대단했어.
그런 뛰어난 교수님들한테 정말 많은 감화를
받았고... 송실대 철학과에 와서 정말 철학
다운 철학을 했고, 내 인생관도 정립되었지.
그전에는 감수성이 예민해서 문학 - 보들레
르나 랭보의 작품을 - 을 즐겨 보고, 니체를

좋아하는 좀 데카당스한 면이 있었지만 정리가 잘 안되어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좀 정리가 된 거지. 그 때만해도 우리 선후배, 동기들 모두 참 책도 많이 읽고, 사색의 폭도 넓고 그랬어요. 고민도 많이 했고, 참 치열했지요. 그런데 내가 제적되고 나서, 다시 90년대에 복학해서 졸업반인 후배들과 얘기해보니까, 뭐랄까... 그 수준이 좀 다르더라구. 이제 4학년인데, 아직도 제한된 사색 — 이를테면 종교의 문제 — 에 갇혀 있는 친구들도 많고... 물론 우리 때라고 종교관이라던가 이런 게 다 정리되고 정립된 건 아니었지만, '신이 있는가 없는가' 등의 종교적 사색의 벽에만 갇혀 있지 않았거든. 물론 송실대가 기독교 학교로서 그런 경향이 짙긴 하지만, 철학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등등의 가치관, 세계관, 나아가 역사관까지 아우르는 범위인데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

- 가까운 선후배나 동기분들도 있을 텐데 선배님의 요즘 정황을 좀 알려주신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사무실을 가리키며) 벤처사업을 하고 있지. 정치관련 사이트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시험용이고, 하나는 이제 오픈 예정인데 'ask chairman'이라는 시민과 의원간의 쌍방향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치 포털사이트지. 지금 각 정당마다 사이트가 있지만 우리는 컨셉이 좀 달라요. 나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 여야를 초월해야하지 않겠어?(웃음)

- 지금까지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고, 지금도 여러 직함을 가지고 계신데, 지난날 해온 일들, 그리고 지금의 위치를 반성, 평가해보신다면?

평민당에 입당을 했을 때, 나는 김대중씨를 잘 몰랐어. 그 당시 평민당도 보수 정당으로 불렸지만, 그래도 이것은 파쇼적인 수구 보수 정당이 아니라 중도적 보수를 지키는 중도 좌파로 나아가는 정당이라고 생각했지. 지금도 그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해. 이것이 비록 호남 대중들의 정당이긴 하지만, 호남 대중들이 누구예요... 바로 서민세력 아니겠어? 평화 민주당,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위치였다고 생각해요. 당에 입당하고 나서 의식적으로 연수원에 들어가고, 처음으로 평민대학을 세워서 전국에서 당원을 뽑고 교육시키고 그랬어요. 나는 실무중심이었지. 그렇지만 당에서 보수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역시 운동의 연장선상이었고 군사독재의 후신인 보수정권, 수구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나라 민주화의 계기라고 믿고 싸워왔고... 당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나름대로 90년에 영등포구 시의원에 나갔고, 떨어졌어요. 우리 안사람도 나가서 지금은 시의원이에요. 송실대 국문과를 나왔지요.

소위 국회에 진출해야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나로서는 아주 늦은 건 아니지만 타이밍을 조금 놓쳤지요. 국회의원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출마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되어야 하는데, 일단 생활기반도 잡아야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더 해야하고 그래야 하는데 좀 어영부영하고, 나 자신도 좀 게으른 면도 있었고... 또 한가지, 당에서도 우리가 활동할 여건을 만들어주질 않아. 야당 때도 그렇고 여당 때도 그렇고... 모두 자기 파 중심으로만 하는 거야. 나는 재야파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재야파는 추슬러 줄 누군가가 없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알아서 올라가는 거지.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것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렇다고 뭐 아주 늦은 건 아니니 아직 계획은 있어요.

- 만약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나 다짐이 있는지요?

요즘은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수구언론들이 교묘하게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면도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치는 싸움, 투쟁이에요. 국민이 선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이익을 잘 지키고 또 확보하려고 후보를 뽑는 거예요. 즉 서민층과 중산층의 이익을 기득권층으로부터 쟁취하기 위해 법을 고치려는 싸움인거죠. 앞으로 통일 시대에 걸맞는 좋은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 우뚝 서고, 다수의 행복을 위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데 내가 보탬이 되고 싶어요. 정치를 통해 철학을 구현하는 것, 그것이지요. 나는 실리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를 해야겠다고 이 길을 들어선 건 아니에요.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철학도라면 한번쯤 고민해봤을 문제들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와 같은 고뇌와 번민 속에서 그 당시, 무고한 양민이 학살당하고 군사독재가 기승을 부리는데 어떻게 이 부조리한 사회에 맞설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철학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된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철학과 정치의 관계

- 그렇지만 철학과 선배들 중에서 정계에 뜻을 두신 분이 드문 것은 사실인데...

우리 때는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대 부분이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일단 시대가 그러했죠. 무엇

보다 철학이 정치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철학이야말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철학의 본령이지, 철학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것은 사이비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동시대를 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살아가야 하는지, 사회 속에서 개인의 가치관단을 넘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적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해결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전적으로 철학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올바른 철학이 올바른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철학이 인간 삶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외면하고 좌시할 수 있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 그렇다면 선배님께서 존경하는 철학자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존경하는 철학자라... 우선 헤겔을 들 수 있지. 그리고 루소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야. 특히 루소 저서도 많이 읽었는데, '인간 불평등기원론'이나 '사회계약론', '에밀' 등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루소를 참 좋아했었어. 그 당시 포이에르바하와 같은 계몽주의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고... 갑자기 불온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웃음).

민주 동문회, 그리고 송살대

- 선배님께서서는 민주동문회란 모임에서도 회장직을 맡으셨는데, 저희 세대에선 그 모임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민주동문회 창립 배경과 취지, 활동 방향 등을 말씀해주신다면?

민주 동문회에서 지금도 내가 회장직을 맡고 있어요. 민주동문회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광주 항쟁이 있고 난 후, 탄압을 겪으면서 유월항쟁을 통해 우리가 대통령직선제로 저들을 꺾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유월 항쟁

으로 기껏 싸워서 이겼는데 대선에서 졌단 말이야. 노태우가 다시 정권을 잡은 거지. 이 때문에 그 당시 분신한 열사들이 많았어. 자해한 학생들도 많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 민주화와 학원 민주화를 위해 각 대학마다 민주동문회가 만들어진 거지.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동문들의 친목도모도 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도 하고... 그렇게 만들었죠. 나는 그때 초대 사무국장을 하다가 바로 부회장직을 맡게 됐지. 한 5년간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92년부터 사회 민주화가 서서히 진전되기 시작하면서 모임 활동이 좀 둔화되었어. 그러다가 몇 년간 소강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태선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추스려서 회장도 뽑고, 작년에 이어서 내가 올해 회장직을 맡게 되었지. 올해는 본격적으로 모임의 체계도 갖추려 하고, 모토도 '동문회 상부상조'야. 각자 생활의 터전에 뿌리를 내리게끔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어주는 거지. 그리고 지금 학교도 기로에 서있어. 총장 연임문제로 교수, 학생,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단이든 총장이든 송실대학에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거야. 이 문제에 관한 총동문회와 함께 우리 동문회에서도 힘을 모아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바른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겠지. 모쪼록 학교가 발전을 해서 우리 사회의 두터운 학벌의 벽을 깰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요.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운동권에서조차 학벌의 벽이 높거든. 서울대를 위시한 고대, 연대 출신들이 자기들은 주류고 나머지 이류, 삼류 지방대 출신들은 마이너들이라고 불려요. 이런 사회의 모순을 깨려면 학교가 발전해야하지 않겠어. 그러기 위해선 학교 스스로가 차별화된 identity를 갖춰야한다고 생각해.

우리학교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교예요. 왜냐면 송실대는 통일 시대를 맞아 평양 송실과 함께 남북 최초의 유일한 통일학교로 민족 앞에 부름 받을 수 있는 학교니까. 게다가 IT업계에선 실력이 대단하고...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도약의 기로에 선 학교를 위해 동문회도 힘을 모아야할 때지요.

나는 학교를 떠나 사회에 나온 지 오래된 선배가 학교사정에 밝은 것에 매우 놀랐다. 애교심이나 애국심 같은 것에 극도로 무관심한 세대의 한사람인 나로서는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발전과 동문들을 생각하는 선배님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으로 느껴졌다.

- 민주당에서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정치포털사이트를 운영하시는데, 현재 언론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자살사이트와 포르노사이트 등의 범람으로 인한 범죄와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은 인터넷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지. 모든 일엔 수레의 양바퀴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따른다고 봐요. 산업혁명 당시에도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부수는 러다이트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많은 농민들이 파산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 인터넷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 인구가 동시에 하나로 접속될 수 있고 여러 다양한 지식과 의견이 공유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정말 과학기술을 통한 놀라운 혁명이고 이것으로 인해 시대가 발전하고 변한다는 점은 분명해요. 물론 이로 인해 정보를 독점하려는 기득권층과 정보에서 소외된 계층의 격차가 더 커질 염려도 간과할 순 없겠지만 우리 진보적인 사람들, 또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를 잘 활용

해서 — 왜냐면 이 자체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니까 — 이 거대한 흐름에 맞춰가야겠지요. 지금 시대는 비유를 한다면 서부 개척시대의 골드러시라고 볼 수 있어요(웃음).

- 학교 다니실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말씀해주세요.

여기에도 나와있지만(들고 간 동문회 소식지에는 작고한 이상강 선배의 부음이 적혀 있었다) 상강이가 나하고 참 절친한 친구였는데... 문학도 좋아하고... 상강이와의 추억이 참 많아요. 술집에서 선배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싸우기도 무지하게 싸웠지요. 나보다도 상강이가 공부도 잘하고 훨씬 똑똑하고 침착하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그랬는데... 나는 상강이한테 참 미안한게 많아요. 작년에 참 상강이가... (자신 있게 여러 말씀을 들려주시던 선배가 갑자기 말을 중간중간 잊지 못하며 하얗게 펼쳐진 소식지를 바라보았다. 얼마 후 그의 눈가에서 거짓말처럼 굵은 눈물 한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참 미안한게 많아... 암튼 내가 그 뉘까지 잘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장학회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싶어요. 참 착하고... 교수를 해도 했을...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였는데... 하여간 그때 단짝처럼 어울렸던 친구들, 선배들이랑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하라면 힘이 없지요. 80년 봄이 아직도 옛그제 같은데 인생이 참... 벌써 꺾어지는 50을 바라보네요.

선배님은 '이거 참 미안하네 주책을 다 부리고...' 하며 겸연쩍게 눈시울을 훔쳤다. 함께 한 성준 선배와 나는 그 잔잔한 슬픔과 회한이 마음에 스며들어 당혹스럽다기 보다는 어떤 애잔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질문이기는 한데(웃

음), 동문들과 학교에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실 아까 다 얘기한 건데... 선배들한테 감히 할순 없고(웃음)... 우리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송실대 철학과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철학과는 다른 과보다 여러 가지 인문학적 지식과 사색의 폭이 훨씬 넓고, 깊어야할 필요가 있어요. 학부 다닐 때는 문학부터 과학, 철학, 역사 등 포괄적인 교양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뚜렷이 했음 좋겠고... 또 그것을 치열하게 추구했으면 해요.

마치며

인터뷰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어둠과 추위는 더욱 깊어 있었다. 이토록 오랫동안 누군가의 진지한 이야기를, 눈을 맞추며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하고 살지만 정작 부족했던 것은 사색이 아니라 대화였음이 분명하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바로 한순간 전에도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의미를 갖고,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며 또 다른 인생이 소리 없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이 경이롭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다.

〈공연안내〉

이반 동문(40회·본명 이명수, 송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극작가)의 '아, 제암리여!'라는 작품이 우치다 도로의 연출로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대학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이 작품은 '칼과 춤'이라는 원작을 다카노 가나메가 각색한 것으로서 작년 3월 1일부터 5일간 일본 도쿄의 '재일본 한국YMCA빌딩' 극장에서 '총검과 처용무'라는 제목으로 초연된 바 있다.

동 문 회

I. 동문 동정

▶오지석 동문(61회·강도사) 2월 24일 의정부 영광교회에서 라정실 양과 회족을 밝혔다.

▶2001학년도(전반기) 장로회 신학대학원 신입생 전형에서 배기훈 동문(69회·대학원 석사과정)·최지환 동문(70회)·이재훈 동문(72회)이 합격하였으며, 총신대 대학원 신입생 전형에서는 이동현 동문(71회)이 합격하였다.

▶김범수 동문(대학원·대학원 박사과정) 2001년 3월 1일부터 철학과 조교로 근무한다.

▶배기훈 동문(69회·대학원 석사과정) 2001년 3월 1일부터 문예창작학과 조교로 근무한다.

▶현종철 동문(72회·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과정) 3월 17일 명성교회에서 권지은(사회복지사)양과 회족을 밝힌다.

▶김현미 동문(72회·대학원 석사과정) 2001년 3월 1일부터 영어영문학과 조교로 근무한다.

▶이정도 동문(73회·대학원 석사과정) 2001년 3월 1일부터 생활관 조교로 근무한다.

▶장도영 동문(73회) 2001학년도 제1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 전공과정에 진학하였다.

▶윤철현 동문(73회) 2001학년도 제1학기 한양대 경영학과 대학원 신입생 전형에 합격하였다. 그는 또 2001년 2월 28일 R. O. T. C. 제39기 소위로 임관한다.

II. 동문회 소식

▶동문회는 철학과와 공동으로 1월 11일(목)

오후 6시 모교 사회봉사관 툼립홀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폭설로 많은 동문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뜻깊은 모임이었다.

한편 이성재 동문(36회·뉴저지 웨스트우드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은 E메일로 신년하례와 아울러 "조요한 교수님을 비롯하여 동문회원께 주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동문회는 1월 11일(목) 오후 5시 모교 사회봉사관 툼립홀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처리되었다.

철 학 과

I. 교수 동정

▶최명관 명예교수(서양철학) 2000년 12월 『생각하며 산다』란 제목의 문집을 송실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상재했다.

▶백도형 교수(현대영미철학) 2001년 3월 1일부터 철학과 학과장과 대학원 주임교수로 수교할 예정이다.

II. 학부 및 대학원 소식

▶철학과에서 개설한 제1회 고전어 집중코스가 계획대로 1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5주간 실시되었다. 코스에 지도를 해주신 김인석 박사(독일어), 이상인 박사(희랍어), 신하령 박사(한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철학과에서는 2000년 12월에 『사색』 제16집을 발간하였다. 『사색』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동문께서는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하기 바란다.

▶2001년 2월 16일 거행된 학위수여식에서 철학과에서는 2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3월

새학기에는 2000학년도에 입학한 역사·철학과군 학생들 중에서 28명의 학생이 2학년으로 배정되어 현재 철학과 재학생 수는 90여명이 된다. 또한 올해에도 1학년 신입생을 역사·철학과군으로 모집하여 70명이 입학하였으며, 이들은 내년 3월 철학과와 사학과 중에서 전공을 배정받게 된다.

▶철학과로 2001학년도 제1학기에 고요열, 김성은, 문성준씨(이상 학사)와 강연주, 김장곤, 모세은씨(이상 일반)가 편입시험을 통해 새로 들어온다.

▶2001년 2월 16일 거행된 학위수여식에서 대학원 철학과에서는 석사 3명을 배출하였다: 이경희("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도덕성의 상징으로서의 미"), 채순진("암스트롱의 심리철학"), 이형용("마르크스의 인간이해와 그 의의에 관하여").

그런가 하면 3월 새학기 박사과정에는 3명(김범수, 이경희, 채순진)이, 그리고 석사과정에는 5명(김영욱, 김현미, 이정도, 정용훈, 정재식)이 새로 들어온다.

▶대학원 철학과 학생회(회장: 구태환)에서는 1월 16일 월례 발표회를 가졌다. 이성준(72회·석사과정) 동문이 "『노자』에서의 무위(無爲)"를, 최한빈(62회·박사과정 수료, 천안대 강사) 동문이 "종교문화 속에서 초월 - 초월에 대한 열정과 그 형식"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박채훈(70회·석사과정) 동문과 신응철 박사(64회·수도침례신학대, 남서울대 강사)가 각각 논평을 하였다.

승실철학강좌

▶철학과는 동문회의 후원 아래 승실철학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올 3월과 5월에 각각 제8회와

제9회 승실철학강좌를 계획하고 있다.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주소 업데이트

▶임상호 동문(42회·경비 여단장)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101경비단

▶김천수 목사(43회·소망교회 수석부목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3동 505호 (전화) 542-0794

▶조성기 목사(43회·포항북부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우방비치 108동 1801호 (교회) 054-242-5261

▶최천석 동문(46회·인천 광성고등학교 교사) 서울 관악구 봉천7동 1618-34 (전화) 874-5769/ 011-9884-5769 (직장) 032-887-6809

▶차현재 동문(46회·승실대 문예창작학과 강사) 경기 과천시 주공아파트 642동 306호 (전화) 501-8768/ 011-235-8292

▶박상선 동문(50회·승실대 철학과 강사) 강원 원주시 단계동 1082-11 (전화) 033-745-5158 / 011-366-2898

▶강성식 동문(55회)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문촌마을 신안아파트 1706동 701호 (전화) 031-917-6640/ 016-333-6640

▶류홍선 동문(60회·인천 광성고등학교 교사) 인천 중구 도원동 산 12번지 (전화) 032-883-2179

▶김철형 동문(61회) (직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2-31 영창빌딩 401호 대교 논현지점 (전화) 3446-0909/ 017-266-9421

▶배기선 동문(64회·공무원)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628 2층 2호 (전화) 2281-5826/ 011-

298-1586 [직장] 성동구청 총무과 (전화)
2290-7313

▶**남근우** 동문(65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30-1 (전화) 723-7128/ 017-208-9600 [직장]
(주)아이폴 정보통신 대표, 서울 서대문구 홍
은동 48-84 신지식 산업센터 202호 (전화)
395-8298

▶**유현상** 동문(65회·대학원 박사과정, 방송
통신대 교양학부 조교)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48-3 은행하이츠 101호 (전화) 523-4576/
011-796-9576

▶**권일훈** 동문(67회·신천교회 전도사) 경기
광명시 하안1동 주공아파트 124동 204호 (전화)
852-1545/ 011-496-1545

▶**남경호** 동문(67회) [직장] 서울 동작구 사당3
동 162-95호 EQA국제인증센터 관리팀 과장
(전화) 532-9221/ 018-367-2304

▶**장미성** 동문(68회·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University at Buffalo, Hadley Village
113J-C, Buffalo, N. Y. 14261 U. S. A.
(전화) 716-834-6904

▶**이정선** 동문(68회·인문대학 사무실 조교)
경기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쌍용1차아파트
105동 1102호 (전화) 764-7551/ 017-355-1736
[직장] 820-0304

▶**차봉준** 동문(70회·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사과정) 서울 강서구 등촌3동 주공아파트 203
동 1506호

▶**송지현** 동문(70회) 서울 동작구 사당4동
296-6 (전화) 016-267-0764 [직장] (주)서서울
케이블TV 마케팅팀 (전화) 365-0101, 352-6442

▶**조영민** 동문(71회·군 복무) 경기 파주시 파
평면 덕천리 사서함 95-20 7226부대 2포대 전포

대장 중위 (전화) 017-699-9037

▶**이태훈** 동문(72회) 서울 은평구 신사동 미성
아파트 6동 705호 (전화) 373-8243/ 016-212-
8243

▶**백두환** 동문(72회·대학원 석사과정, 송실
대 기독교 사회연구소 조교) 서울 강남구 역삼
동 699-13 3층 (전화) 554-3680/ 011-285-3021
[직장] 820-0839

▶**임정택** 동문(73회) 1808 Kitty Hawk Drive
#4 Columbia, MO 65202, U. S. A. (전화)
573- 474 -1215

기 타

1. 『동문주소록』 배부

▶**동문회**에서는 2001년 2월 1일자로 『동문주소
록』을 발간하였다. 최신 정보들로 가득한 주소
록이 되도록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새로운 정보를 알고 있는 동문들께서는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 주기 바란다.

계간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2001 봄 (통권 제11호)

2001년 3월 1일 발행

발행인: 이 승 하

편집인: 한 석 환

간 사: 이 성 준

☎156-743 · 서울 동작구 상도동 1번지

tel: 820-0370/ fax: 824-4382

e-mail:

philosophy@saint.soongsil.ac.kr